

「달아 달아 밝은 달아」의 구조와 의미

— 패로디의 구조와 ‘희생양’의 의미 —

사지식*
N급

- I. 머리말
- II. 패로디의 구조
- III. ‘폭력’과 ‘희생양’
- IV. ‘희생양’의 현실적 의미
- V. 맺음말

I. 머리말

최인훈은 1970년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를 발표한 이래 소설에서 희곡으로의 이행을 시도하였다. 이는 긍정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두루 거치겠지만, 희곡의 분야에서는 “비로소 우리문단에 ‘劇詩人’이 탄생했다”¹⁾거나 “뛰어난 극작가가 드문 한국 연극계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²⁾는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 그의 희곡은, 설화적 소

* 서울대 국문과 강사, 논문으로 「소학지회의 공연방식과 희곡의 특성」 등이 있음.

1) 이상일, 「극시인의 탄생」, 『옛날 옛적에 휘이 휘어이』(최인훈 전집 10), 문학과지성사, 1979, 289쪽.

2) 김병익·김현, 『우리시대의 작가총서-최인훈』, 은애, 1979, 5-6쪽.

재를 채택하였다는 사실과 詩와 같은 지문과 대사 등으로 인하여 '임히는 희곡'으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최인훈 희곡의 연구는 개별작품으로 다루기보다는 설화소재의 희곡을 종합적으로 다룬 경우가 많다.³⁾ 대체로 설화의 변용방법이나 제의적인 측면, 연극적인 측면 등을 다루었는데 각 희곡의 개별성보다는 공통성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개별작품으로는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달아달아」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는 고전작품의 현대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오경복은 보편적 상징의 하나인 재생 원형(rebirth archetype)의 개념을 적용하여 「심청전」과 「달아달아」의 동질성을 찾아내고자 하였다.⁴⁾ 유인순은 문학사회학적 입장에서 채만식의 '심봉사'와 최인훈의 「달아달아」에 나타난 소재의 변용과정에 대해 논하였다.⁵⁾ 김유미는 채만식의 '심봉사'와 최인훈의 「달아달아」의 희곡적 특성을 강조하여 판소리 「심청가」의 극적 요소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고찰하고 있다.⁶⁾ 한편, 김치수와 김방옥은 평론을 통해 「달아달아」의 현실적 의미를 집약적으로 분석하였다.⁷⁾

3) 권오만, 「최인훈 희곡의 특질」, 국제어문 1, 1979.

유계철, 「희곡의 의미 구조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81.

장혜전, 「설화 소재 희곡의 특성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1.

강경재, 「한국 희곡의 비극성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83.

남진우, 「최인훈 희곡 연구」, 중앙대 문예창작과 석사학위논문, 1985.

유진월, 「최인훈 희곡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88.

김성수, 「최인훈 희곡의 연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0.

양승국, 「최인훈 희곡의 독창성」, 『작가세계』 4, 1990년 봄호, 1990.

4) 오경복, 「「심청전」과 「달아 달아 밝은 달아」에 나타난 再生 原型 研究」,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0.

5) 유인순, 「채만식 최인훈의 희곡 작품에 나타난 「심청전」의 수용」, 『비교문학』 11집, 1986.

6) 김유미, 「판소리 <심청가>의 현대적 계승에 관한 일고찰」,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1.

7) 김치수, 「작가의 변모-최인훈의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문학과 비평』

최인훈의 희곡작품 다섯 편은, 넓게 보아서 ‘설화 소재 희곡’으로 함께 불러지지만 좁게는 각기 다른 양상의 설화를 채택하고 있다. 즉 역사적인 인물전설, 민간설화, 또는 설화에서 더 나아간 고전소설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

「달아달아」는 희곡으로의 이행이 시작된 한참 뒤인 1978년에 발표되었는데, 설화를 직접 차용한 것이 아니라 판소리계 소설을 패로 디화하여 재해석하였다는 측면에서 다른 희곡들과 변별된다. 판소리계 소설은 양면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따라 주제 역시 표면과 이면의 이원적 양태를 띤다고 알려졌다. 이는 고전적인 세계관, 이른바 초월주의적 세계관과 현실주의적 세계관이 공존한 결과이며 판소리 수용층의 이원성에 따른 결과이다. 판소리계 소설이 드러내는 현실주의적 세계관과 裏面的 주제는 이미 현대적 재해석의 길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판소리계 소설은 현대적 재해석의 보고⁸⁾라고 할 만하다. 실제로 최인훈은 「달아달아」 말고도 소설 「춘향전」과 「놀부전」을 통하여, 판소리계 소설을 재해석하는 기발함을 보여 주었다.

역사적 사실, 신화, 전설이나 널리 읽혀진 고전작품에서 소재를 차용하여 작품을 창작할 경우, 그 작품은 많은 장점을 가지게 된다. 먼저 원전이 갖고 있는 구조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새 작품의 예술성을 향상시키는 데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작가의 주제의식을 강하게 전달시키는 데서도 효과적이다. 잘 알려진 이야기를 소재로 빌면서도 그중 어느 특정한 일면을 부각시킬 때 그리고 그것이 독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차이점으로 드러나게 될 때 작가의 의도가 더욱 명확해지기 때문이다.⁹⁾ 고전의 소재를 차용

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1984.

김방욱, 「탁월한 극적 고안과 아이러니의 효과」, 『객석』 85년 8월호.

8) 김방욱, 앞의 글, 169쪽.

9) 오세영, 「춘향전의 봉건성과 현대극화」, 『상상력과 논리』, 민음사, 228쪽.

하는 여러가지 방식 중에서도 특히 패로디의 방식은 작가의 고의적인 목적성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달아달아-」에 있어서 그 패로디의 의도를 밝히는 것은 작품 이해에 중요한 관건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판소리계 소설 「심청전」과 「달아달아-」를 비교하여 패로디의 구조를 살펴보고, 두 작품의 거리를 통해 얻어지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패로디의 구조

패로디는 ‘차이를 내포한 반복’¹⁰⁾이다. 즉 지속성과 변화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항상 앞선 전통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보수적이면서 지속적이라면, 그 전통에 거리를 두고 새로와짐으로써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패로디가 ‘명백히 합성물이며 이중의 목소리를 지닌다’¹¹⁾는 말과도 통한다. 따라서 원텍스트와 패로디화한 텍스트는 상호텍스트적(intertextual) 특성을 지니며 원텍스트에 비추어 새로운 텍스트를 해독할 수 있다.¹²⁾

이러한 관점으로 보자면, 「달아달아-」의 배후에는 원 텍스트인 소

10) 린다 허천, 김상구·윤여복 옮김, 『패로디 이론』, 문예출판사, 1992, 192쪽. 린다 허천은 패로디에 관한 한 역사를 초월한 정의는 없으며 패로디의 의미는 변한다고 말한다. 이전에 패로디는, 조롱하거나 우습게 만들려는 의도를 지니고서 원 텍스트와의 대조나 대비의 의미를 강조했으나, 그녀는 ‘para-’의 무시되어 온 뜻인 일치와 친밀성의 의미를 부가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패로디의 대상이 된 작품과 패로디화한 작품 사이에는 지속성과 변화가 모두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패로디의 실용적 정신의 범주가, 경멸에 찬 조롱으로부터 경외심에 찬 경외에 이른다고 하여, 패로디가 희극적인 효과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진지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11) 린다 허천, 앞의 책, 198쪽.

12) 린다 허천, 위의 책, 63쪽.

설 「심청전」이 있어서 그것과 대비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반복과 차이, 혹은 지속성과 변화를 밝혀 내고자 우선 「심청전」과 「달아달아」의 구조를 비교하고자 한다.

「심청전」과 「달아달아」의 공통적인 서사구조를 추출하고 그 반복과 변화의 측면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심청이 공양미 삼백석에 몸을 팔다.

<심> 인신공희의 제물이 되다.

<달> 색주가의 창녀가 되다.

[나] 심청이 용궁의 용(왕)에게 바쳐지다.

<심> 초월세계인 용궁의 용왕의 제물이 되다.

<달-1> 현실 속의 색주가 '용궁'의 손님의 제물이 되다.

<달-2> 해적들의 제물이 되다.¹³⁾

[다] 심청이 죽다.

<심> 물에 빠져 죽다.

<달-1> 성욕의 대상으로 몸이 팔려 정신적으로 죽다.

<달-2> 성적 유린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죽다.

[라] 심청이 환생하다.

<심> 용왕에 의해 환생되다.

<달-1> 김서방에 의해 정신적으로 환생되다.

[마] 심청이 고국으로 돌아오다.

<심> 연꽃을 타고 돌아오다.

<달-2> 해적선을 타고 돌아오다.

<표 1>

[가]에서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공양미 삼백 석에 몸을 판다는 것은 같다. 「심청전」의 경우는 남경장사의 '용왕제(海神祭)'

13) <달-2>는 순차적으로는 <달-1>의 후속이지만 반복되는 양상이라고 보아 같은 항목에 넣었다.

에 제물이 되기 위하여 팔려가는 것이지만 「달아달아」의 경우는 중국 색주가의 창녀로 팔려간다. 심청이 팔려가는 장소가 중국으로 설정된 것은 「심청전」의 '남경장사'로부터 파생된 것이지만 국내의 색주가가 아닌 외국의 색주가로 팔려가는 설정은 또다른 현실적 의미를 지닌다.¹⁴⁾

[나]에서 심청이 용궁에서 용 또는 용왕에게 바쳐진다는 것이 동일하다. 심청은 「심청전」에서, 초월적인 존재로서 바다를 다스리는 사해용왕에게 바쳐진다. 그러나 초월주의적인 세계관이 개입되지 않은 「달아달아」에서 용왕에게 몸을 바친다는 설정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호릿한 불빛
차츰 밝게
드러나는 龍宮의 한 방
산호빛 기둥
푸른 기와
구슬 발이 걸리고
산호나무가
여기저기 놓이고
산호발 속은 보이지 않는데
기둥에는
龍이 휘감고 올라간
장식이 새겨졌고¹⁵⁾

심청이 팔려간 색주가의 모습을 묘사한 설명 부분이다. 상상 속의 용궁처럼 화려한 장식을 해 놓은 이곳은, 이름이 '용궁'인 색주가의

14) 이에 관해서는 4장에서 언급될 것이다.

15) 최인훈,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최인훈 전집 10), 문학과지성사, 1992, 272쪽.

것이다. 한편 색주가 '용궁'에서 심청의 몸을 사는 손님들과 심청을 유린하는 해적들은 모두 '용'으로 형상화된다.

발 속에 닫힌 둥근 창문에 갑자기 비치는 용의 그림자, 드높아지는 파도 소리, 바위에 부딪히는 물결 소리, 그러자, 물결 사이로 들리는 여자의 신음 소리, 바닷물 소리는 점점 드높게, 거칠어지고, 신음 소리는 깊은 바다 밑에서 들려오듯, 흐느끼며, 끊어졌다 이어졌다 불빛이 어두워지고 창문에 비친 용의 그림자만 뚜렷이 아가리를 벌리고 뿔을 흔들며 꿈틀거린다.¹⁶⁾

심청의 손목을
잡아,
부엌간으로
들어간다
부엌 창호지에
비치는 그림자
큰 용의 그림자¹⁷⁾

용의 꿈틀거림이 어두운 무대 조명과 함께, 심한 번개, 바람 소리, 파도 소리와 어울려 性的 행위를 암시한다. 창호지 바른 창문의 불빛과 그림자로 어떤 행위를 드러내는 기법은 최인훈의 희곡 작품에서 종종 쓰이는 것으로서, 극의 연출상 사실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부분을 감당하려는 배려이다. 그러나 사람의 그림자가 아닌 용의 그림자로 표현된 것은 「심청전」의 '용왕'으로부터 의미의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심청전」의 용왕은 심청을 환생시켜 운명을 바꾸어 놓는 선하고 정의로운 이미지로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옥황상제'의 명에 의해 행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6) 최인훈, 위의 책, 277쪽.

17) 최인훈, 앞의 책, 296쪽.

명령이 아니었다면 심청을 희생제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용은 물에 사는 괴물, 원초적 밤의 양태이며 우주적인 물, 어둠, 밤, 죽음 등의 상징이다.¹⁸⁾ 따라서 ‘용왕’과 ‘용(손님, 해적)’은 미지의 괴물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가 반복된다고 하겠다. 한편 인간의 상상력 속에는 바다에 용궁 같은 낙원이 있다고 믿는 경지와 괴물이 있다고 두려워 하는 경지가 있다고 한다.¹⁹⁾ ‘용왕’은 이러한 이중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며 절대적 존재인 옥황상제의 통제에 의하여 ‘낙원’의 수장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용(손님, 해적)’은 철저히 어둠의 존재이며 만남이 거둬질수록 심청은 훼손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색주가 ‘용궁’은 심청에게 있어 전략의 중심이며 바다 속 용궁이 구원의 중심인 것과 대비된다.

[다]에서 심청의 죽음이 나타나는 점이 동일하다. 『심청전』에서 심청은 인당수에 빠지면서 물리적으로 죽게 된다. 용궁에서의 시간은 현실계와 이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죽음의 단절을 통해 들어간 초월계의 시간이다. 그녀는 죽은 생모의 前身인 옥진부인을 만나는 등 전생의 인연을 알게 되는데, 인간적인 개념으로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달아달아』에서는 정신적인 죽음의 상태를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소리 : 악—!

차츰 어두워지는 빛 속에 힘이 사그라지는 용, 비바람 소리와 바닷가 물결 소리도 따라서 사그라지면서 마침내 아무 소리도 아무 빛도 없는 조용하고 캄캄한 무대

(중략)

산호침대 위에

18) M.엘리아데, 이동하 역, 『성과 속』, 학민사, 39쪽.

19) 바슐라르, 이가림 역, 『물과 꿈』, 문예출판사, 1978.

짓밟힌 해당화 무더기처럼
쓰러져 있는 심청
(중략)
긴, 오랜,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는
사이²⁰⁾

누워 있는 심청
이때 심청은 인형을 쓴다
해적 인형을 발로
걸어차고
일어선다
인형 벽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떨어진다²¹⁾

‘악—!’ 하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심청의 정신은 죽음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손님’과의 性的 행위가 끝난 후 ‘아무 소리도 아무 빛도 없는 조용하고 캄캄한 무대’와 ‘짓밟힌 해당화 무더기처럼 쓰러져 있는’ 몸은 바로 이러한 죽음을 형상화한 것이다. 실제로 성적 행위가 지속되는 시간을 ‘긴, 오랜,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는 사이’로 설명하여 심청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해적에게 성적 유린을 당한 뒤에 나타나는 심청의 모습은 인형으로 표현됨으로써 마치 시체를 연상하게 한다.²²⁾ 한편, 人身供犧의 흔적을 보여주는 설화에서도 性的 결합은 죽음과 등가의 의미를 지니는 것

20) 최인훈, 앞의 책, 277-283쪽.

21) 최인훈, 앞의 책, 297쪽.

22) 이 부분 역시 연출상의 편의와도 관련이 있지만 의지와 주체를 상실한 채 수동적으로 휘둘리는 심청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으로 나타난다. 대개는 뱀이나 지네 등 水神계의 괴물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괴물은 처녀를 잡아먹거나 신부로 맞이함으로써 제사를 받아들여지게 된다.²³⁾ 심청을 용왕에게 제물로 바친 것이 전자의 형태라면 용으로 표상된 손님이나 해적에게 제물로 바친 것은 후자의 형태라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물리적인 죽음을 당하지는 않지만, 괴물과의 성적 결합은 인간다운 삶의 종말이며 죽음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라]에서는 심청이 환생한다는 면에서 동일하다. 「심청전」은 용왕이 심청을 환생시켜 연꽃에 태워 인간세상에 돌려 보낸다. 이는 물리적인 환생이다. 「달아달아」에서 심청의 정신적인 죽음은 김서방에 의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서방은 조선의 인삼장수로 중국을 왕래하다 심청을 만나 사랑하면서, 그녀를 구원할 뿐 아니라 그 자신도 타락에서 헤어나게 된다.

손을 잡는 두 사람의 그림자, 그림자 없어지고 무대 다른 곳의 조명이 꺼지면서 두 사람의 그림자 대신, 창문에 비치는 갈매기 두 마리의 그림자

먼데서

철썩

철썩

봄 바다

물결치는 소리

끼룩끼룩 갈매기 울음소리

갈매기가 날개를 치는

가볍고 부드러운 소리²⁴⁾

23) 蛇神설화와 蛇神제의를 연관시켜 그 형성과정을 밝힌 연구로, 박종성, 「蛇神설화의 형성과정과 변이」,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1.

24) 최인훈, 앞의 책, 290쪽.

김서방과 심청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다. 같은 행위를 표현하면 서도 '용궁'의 손님과 상대했을 때와는 아주 다르다. 용과 갈매기로 대비될 뿐 아니라, 비바람과 물결이 세차게 몰아치던 바다는 '달빛이 번지는 가운데 물결소리 잔잔한 봄바다'로 바뀌어 버렸다. 이러한 변화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물은 보편적인 상징으로서 죽음과 재생을 의미한다. 한편 용과 갈매기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아래와 위에 위치한다. 심청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용은 바다 깊숙이 사는 괴물인데 비해 갈매기는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존재이다. 이들은 <험난한 바다-용-아래>와 <평온한 바다-갈매기-위>의 대조를 이루면서 각각 죽음과 재생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²⁵⁾

[마]에서 심청이 조선 땅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같다. 「심청전」에서는 연꽃을 타고 돌아온다. 연꽃은 萬德을 갖춘 '만다라'를 상징하며 심청이 자아로서의 빛 혹은 자기동일성의 획득과 회복에서 오는 기쁨을 표현한다.²⁶⁾ 심청이 황후가 되고 후일 승천하는 것과 아울러 생각할 때 이는 끊임없는 상승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달아달아」에서는, 귀국할 기회가 두 번 주어진다. 첫번째는 김서방에 의한 정신적 환생 이후인데 해적에게 잡히면서 좌절된다. 두번째는 해적선(왜구)을 타고 돌아오게 되는데 해적에게 유린당한 죽음의 상태에서 그대로 귀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심청전」과 대조적으로, 끊임없는 하강, 곧 추락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희곡의 결말부분에 놓고 보면 심청이 아이들의 놀림을 받는 장면은 바로 이러한 추락의

25) 갈매기가 표상하는 天空이 용으로 표상되는 악마적 세계의 상관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오경복의 논문에서 지적된 바 있다. 앞의 논문, 46-5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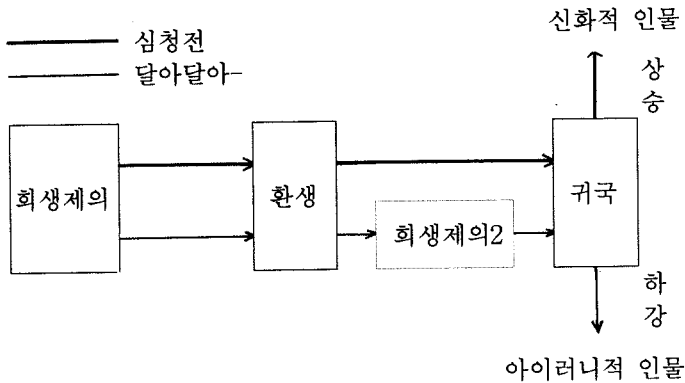
26) 성현경, 「성년식 소설로서의 심청전」, 『서강어문』 3, 1983, 18쪽.

경관 24장분을 중심으로 Joseph Campbell의 입사식의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심청의 일생을 <적강-시련-입사-성취-승천>의 구조로 보고 '우주내적 존재로서의 자아' 탐색의 과정으로 보았다.

단면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심청전」과 「달아달아-」에는 <①몸을 팔다-②용에게 바쳐지다-③죽다-④환생하다-⑤돌아오다>의 구조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①②③을 다시 말하면 <희생물 선정-제사의식-죽음>이며 이는 곧 '희생제의'의 구조와 같다. 「달아달아-」는 「심청전」의 희생제의를 모방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패로디의 '반복'의 측면이다. 반면 '차이'의 측면이 존재한다. 「심청전」에서는 한번의 희생제의가 치뤄지지만 「달아달아-」에서는 희생제의²⁷⁾가 거듭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표 1>에서 [나][다]의 <달-2>는 제2의 희생제의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희생제의를 되풀이되는 것은 「심청전」과 「달아달아-」의 차이를 내포하는 주요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2>

27) 실제로는 '희생제의적인 것'이지만 편의상 논의에 무리를 주지 않는 한 '희생제의'로 사용한다.

「심청전」의 심청은 <희생제-환생-귀국>의 순조로운 과정을 통해 신화적 인물로까지 상승하고 있다. 심청은 원래 天上선녀가 적당한 존재로서 ‘영웅의 일생’이라는 전승적 유형에 따라 죽음에 이르는 고난 끝에 다시 천상에 복귀하는 것이다. 「달아달아」의 심청은 <희생제-환생-희생제의2-귀국>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김서방의 사랑으로 맞이한 정신적인 환생이 귀국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좌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소망스러운 구원의 손길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심청의 비극적인 상황을 고조시킨다. 제2의 희생제를 통하여 심청은 훼손당할 대로 훼손당하여 자아가 상실된 상태, 더 나아가 죽음의 상태²⁸⁾로 나타나는데, 심청의 귀국은 바로 죽음의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심청은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인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심청은 시종 나약한 인물로 나타나지만 결말 부분에서 늙고 눈먼 미치광이 노파로 나타난 심청은 아이러니적 인물의 극치를 보여준다.

희생제의는 「심청전」의 근원설화인 인신공희설화에서, 더 나아가 실제의 人身供犧儀式으로부터 반복되어 온 구조이다. 「심청전」은, 비극적인 인신공희가 심청이라는 인물의 일생을 통하여 희극으로 변형된 예라고 하겠다. 꽃다운 나이의 처녀가 인신공희의 제물로 죽어 버린다는 사실은 지극히 부당한 것이다. 이에 ‘옥황상제, 용왕, 연꽃’ 등의 초월적이고 신성적인 존재의 등장은 민중들의 소박한 꿈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실에서의 불행한 비극적 인물에게 허구 속에서도나마 행복한 보상을 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심청의 행복을 보장하는 초월적 장치들은 구전설화와 고전소설의 시대를 벗어난 지금 더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인신공희의 종교적 체험을 믿고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시대의 문제를 현대의 합리적이고 현실적

28) 주 22), 23)의 인용문과 본문 참조.

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인신공희 자체는 더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못하는 대신, '인신공희적인 것'이 문제거리로 부각된다. 아울러 문제의 해결장치로 등장했던 초월적인 존재 및 우연성 등은 현실적인 인과관계로 대체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심청전」과 「달아달아-」의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며 그 '차이'에 작가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폭력'과 '희생양'

작가는 「심청전」의 인신공희 자체를 「달아달아-」의 '인신공희적인 것'으로 바꾸고 초월적인 우연성을 현실적 인과관계로 대체하면서, 「달아달아-」의 심청을 더욱 철저한 희생제물이자 '희생양'으로 만들어 놓았다.

'희생양'은 한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만인의 폭력과 관련되어 있다. 르네 지라르에 의하면, 집단적 폭력을 입증하는 텍스트들은 다음의 특성을 갖고 있다.²⁹⁾ (1)폭력이 실재하며, (2)위기도 실재하며, (3)희생물은 죄 때문에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표지 때문에 쫓겨나며 (4)희생물이 위기의 책임을 떠맡고 쫓겨난다³⁰⁾는 것이다.

심청은 희생제의적인 사건을 두 번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때 희생을 받는 대상은 용으로 표상된 '손님', 혹은 '해적'이며 이들은 성욕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적인 초월주의적 세계관에서는 용과 같은 괴물, 또는 신적 존재가 인간을 전면적으로 통제

29) '희생양' 기제는 원래 신화 등의 설화를 분석하기 위해 마련된 틀이다. '달아달아-'는 현대희곡이지만 그 근원은 '인신공희설화'와 일치하며 희생제의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달아달아-'를 '희생양' 기제로 분석할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30) 김현, 「폭력의 구조」(르네 지라르론), 『시칠리아의 암소』, 문학과지성사, 1992, 67쪽.

하였기 때문에 그 위협은 절대적인 희생위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달아달아」의 희생위기는, 性慾을 추구하는 용(손님)뿐 아니라 개개인이 가진 현실적인 욕망들이 분출되면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즉 性이라는 상품과 수요자, 매파와 중간상인 등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고 서로 혼돈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희생위기인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서 서로에게 가해질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을 희생양으로 몰아부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만인의 개인에 대한 폭력이 되는 것이다.

심봉사는 자신의 꿈 속에서 희생위기를 경험한다.

심봉사 : 천만에, 천만에
어찌 감히
편한 잠을
자겠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그 생각만 하면서
산목숨이
산목숨이 아닌
어제 오늘이올습니다

사 자 : 아무려나
네가
부처님 앞에
말을 내고
그 말을 어겼으니
이제 잔말 말고
나를 따라라³¹⁾

심봉사가 공양미 삼백석의 시주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자 죽음의

31) 최인훈, 앞의 책, 252쪽.

사자가 나타나 심봉사의 목숨을 거두어 가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신의 위협은 명백히 희생위기이다. 그러나 이는 꿈 속의 내용이며 심봉사의 불안정한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그가 잠재의식 속에 ‘神’의 존재를 끌어들이는 것은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할 준비가 되었음을 암시한다. 神이란 바로 개인 저마다에 속한 ‘폭력의 환상적 육화(incarnation illusorie d une violence)³²⁾이기 때문이다. 심봉사가 공양미 삼백석을 약속한 것은 실수라기보다 욕망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심봉사 : (머뭇거리며)

왜, 네가 전날에
하던 말 있잖나?

심 청 : 무슨 말 ?

심봉사 : 그, 장부자네가
너를 수양딸로
삼겠다던 말
(중 략)

심 청 : (말리며) 진정하세요... 좋은 수가 있을지

심봉사 : 좋은 수라니? (한참후에) 장부자네 소실 얘기 말이야?

심봉사의 속셈은, 심청이 장부자네 수양딸로 갈 것이고 그러면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데에 있었던 것이다. 그는, 심청을 수양딸이 아니라 소실로 주어서라도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려 한다. 그의 이기심은 단순히 눈을 뜨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 심청이 중국으로 떠나는 포구 근처에서 심봉사와 뽕덕어미가 나누는 대화는 판소리 소설의 문체를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서로 골계적인 대화를 주고 받는 사이에 심봉사의 태도는 애매모호해진다. 심청이 팔려

32) 김현, 앞의 책, 49쪽.

가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뺨덕어미와 함께 색주가를 차리고 돈을 벌 궁리에 들떠 있는 것이다. 둘의 대화에서 심봉사가 ‘용띠’라고 말한 것은, 심청을 훼손하는 장본인이 ‘용’으로 표상되는 것을 상기할 때 시사적이다.³³⁾ 심봉사 역시 희생위기를 조장하는 욕망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겠다.

희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욕망의 화신들이 찾아낸 희생양이 바로 심청이다. 심청이 희생양으로 몰린 이유는 그녀가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희생위기의 상황에 책임이 있어서도 아니다. 다만 희생양이 될 만한 표지가 있기 때문이다.³⁴⁾ 심청은,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욕망의 화신들과 공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희생의 표지를 갖는다.

욕망의 화신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서로 결합하고 있다. 즉, 손님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색주가를 찾고, 색주가의 매파는 손님을 끌기 위해 처녀를 사고자 하고, 뱃사람과 뺨덕어미는 돈을 벌고자 심청을 소개하고, 심봉사는 이기심과 물욕으로 심청의 희생을 방조 또는 강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손님-매파-뱃사람-뺨덕어미-심봉사>로 이어진 욕망의 사슬에 의해 이들 모두는 심청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데 합의한다. 즉 ‘폭력적 만장일치(unanimite violente)’³⁵⁾가 조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아를 둘러싼 세계가 서로 공모하였다는 점에서 그 폭력은 합법적인 것이 된다.³⁶⁾ 폭력과 희생에 관한 텍스트에는 그것을 드러내는

33) 김방옥의 앞의 글에서 심봉사가 부정적인 인물로 표상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170-171쪽.

34) N. 프라이,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62쪽. 희생양이 되는 주인공은 비극적 과오도, 편벽된 고집도 갖고 있지 않은 자로서 다만 단순히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35) 르네 지라르, 앞의 책, 125쪽.

36) 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1993, 9-60쪽.

것과 감추는 두 종류의 텍스트가 있다고 한다.³⁷⁾ 「심청전」의 경우가 폭력을 은폐하였다면 「달아달아」는 폭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희생양’의 자기희생의 논리와 관련되어 있다. 「심청전」의 심청은 시종일관 자발적인 희생의 경지를 강조하고 있다. 심청의 태도는 凡人의 경지를 초월했다는 점에서 영웅성을 띤다. 심청의 영웅성은 계속 이어져 일국의 왕비가 되고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는 힘이 된다. 심청이 거의 신화적인 인물로 상승됨으로써, 오히려 자아와 세계와의 대결에서 우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심청의 영웅성은 집단의 폭력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집단이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⁸⁾

「달아달아」의 경우는 폭력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심청은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 의한 강요 내지 권유에 의하여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심 청 : 아이구 아버지
 백미 삼백석을
 어디서 얻으려구
 심봉사 : 그, 장부자네가
 너를 수양딸로
 삼췌다던 말
 심 청 : (기가 질려 한참만에)
 ...그랬지요

공양미 삼백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심청은 아비를 원망하는 반응을 보이며, 심봉사가 자꾸 책임을 떠 맡기려 하자 ‘기가 질려’ 하

37) 김현, 앞의 책, 69쪽.

38) 박종성의 논문에서, 심청의 영웅성을 ‘집단의 폭력지우기’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심청이 인신매매꾼인 뱃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위 역시 타의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심청의 어려운 상황을 엮본 뺨덕어미의 권유에 의하여 그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뺨덕어미는 인신매매의 중개자로서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하여, 뱃사람과 심청을 만나게 한다. 「심청전」의 심청이 스스로 남경상인을 찾아가 제물이 되고자 자청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심청에게는 어떤 영웅성도 부각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그녀는 아이러니적 인물로서 그 열등하고 나약함이 도처에서 나타난다. 심청은 심봉사에서 뺨덕어미, 해적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수동적이며 소극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물들은 모두 심청의 행동을 유도하고 강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며 집단의 폭력이 노출된 것이다.

「달아달아」는 폭력이 감추어지지 않음으로써 집단의 거대한 폭력에 희생당하는 개인의 왜소함을 그리고 있다. 개인이 무기력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폭력은 위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동시에 폭력의 부당성이 고발된다고 하겠다.

심청은 소극적이며 왜소한 개인으로서 그 소망 역시 소박하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라는 제목과 관련하여 알 수 있듯이 심청의 소망은 노래가사인 “초가삼간 집을 짓고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교”이다. 이 노래는 전편을 통해 두 번 나오는데 첫번째는 김서방과 사랑을 나누는 장면에서, 두번째는 마지막 장면의 눈멀고 미친 심청이 놀림을 받는 장면에서 들려진다. 처음의 노래는 매우 희망적인 것이어서 심청의 행복한 순간과 순행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장면의 노래는, 모든 소망이 좌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철저히 훼손당한 심청의 모습과 역행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대비는 주인공이 소망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말이 주어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비극적 아이러니는 집단적 폭력을 행사한 세

계와 희생당한 자아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다. 이때 자아에게는 연민을, 세계에는 공포를 느끼게 된다. 세계, 곧 집단적 폭력에 대한 공포와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데에 「심청전」을 패로디화한 「달아달아」의 의도가 있다고 하겠다.

IV. '희생양'의 현실적 의미

작품 속에 역사적인 인물을 등장시키는 것은 최인훈에게 있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소설 「서유기」에서, 주인공 독고준은 긴 여정을 통해 논개, 이순신, 이광수, 조봉암 등을 만나게 된다. 「달아달아」에서도 이순신이 등장한다. 해적선을 타고 조선에 돌아온 심청이, 나라의 죄인으로 끌려가는 이순신을 목격하는 것이다.

심 청 : 저 어른이 누구예요

아낙네 : 이장군 아니우

심 청 : 이장군이 누구예요?

아낙네 : 아니 이장군이 누구라니, 바다 건너온 도적들을 쳐서 이긴 분이시지 누군 누구야

심 청 : 바다 건너온 도적들을

아낙네 : 그럼

심 청 : 그런데 왜 저렇게 잡혀가요?

아낙네 : 그러니까 잡혀가는 게지³⁹⁾

이순신 역시 '희생양'이다.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몸을 사리는 동안에 적과 싸워 물리쳤다는 사실때문에 그는 잡혀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런데 왜 저렇게 잡혀가요?'라는 심청의 반문에 '그러니까 잡혀가는 게지'라고 하는 아낙네의 말은 이를 단적으로 표현해준

39) 최인훈, 앞의 책, 307쪽.

다. 많은 민중들은 전혀 그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조정대신들에 의해 그는 죄인이 된 것이다. 외적의 압박과 침입, 조정에서의 분파 등 내외적인 혼란이 희생의 위기가 되었다면, 의롭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홀로 의롭다는 사실이 희생의 표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심청은 군중 속의 한 개인으로서 이순신을 만나지만 다른 군중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심청이 이순신에 대해 전혀 무지하다는 것이다.

가까운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까지
가까운 사람은
고개를 돌려
그 옆사람은 절반 일어나고
하는 식으로 피라미드처럼
차츰 키가 높아지며
멀리 있는 사람은
일어서서 심청이 앉은
이쪽을
쳐다본다
마치
난데없는 괴물을 주시하듯⁴⁰⁾

심청을 괴물 보듯이 하는 군중의 무리는 피라미드의 모습을 이룬 하나의 큰 덩어리로서, 오히려 심청에게 있어 공포의 괴물처럼 다가서 있다. 이러한 과장적인 형상화는 심청의 無知를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만든다. ‘알고 있는’ 많은 군중 속에서 ‘알지 못하는’ 심청은 격리되어 있다. 죄인으로 호송되는 이순신 역시 수레에 갇혀 군

40) 최인훈, 앞의 책, 308쪽.

중과 격리되어 있다. 둘은 모두 군중과 격리되어 있는 특별한 존재로서 통하고 있으며, 폭력에 의한 희생양이란 측면에서 동질적이다.

한편, 이순신의 등장으로 인해 해적의 실체가 '왜구'로 드러나고, 그들의 전쟁은 임진왜란으로 구체화된다. 즉, 이순신의 출현은 「달아달아」에 역사성을 부여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개인적인 욕망의 화신에 불과했던 손님들과 해적들은 각기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국가의 실체로 전이된다.

이때 심청은 보편적인 욕망의 희생양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 상황이 파생한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작품의 배경이 된 조선시대의 시대적 상황만을 생각한다면, 이 작품에서는, 나라 전체가 중국, 일본 등 외적의 시달림을 받던 때에 가장 처절하게 고통 당하는 한 조선 여인의 운명이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가, 과거가 아닌 현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패로디의 방식을 채택했다고 할 때, 「달아달아」는 작품이 쓰여진 1970년대의 상황 및 그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긴 세월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배경인 조선시대와 작품이 쓰여진 1970년대는 유사한 질곡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당시는 독재정권 및 그와 결탁한 새로운 제국주의 세력의 한 가운데서 가장 힘없는 자들이 가장 고통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분단상황을 초래하고 계속 국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존재와, 막강한 경제력을 무기로 한국의 시장을 잠식해가는 일본의 존재는 조선시대에 못지 않은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되어 있었다. 이른바 식민지화의 도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순신이 등장함으로써 밝혀진 임진왜란 당시라는 시간적 배경 역시 식민시대의 도래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강대국에 시달리다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조선말기와는 시간적인 격차가 있다. 그러나 이른 시기부터 거듭된 외국의 간섭과 침략이 결국 식민지라는 현실을

초래하게 된 것이므로 임진왜란 당시는 매우 문제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외적의 압박과 침입, 조정에서의 분파 등 내외적인 위기에 명장 이순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버린 혼란의 시기였다고 하겠다.

한편, 신제국주의 세력으로서 미국은 이땅에 그들의 군대를 남겨 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청은 다름 아닌 ‘기지촌의 아가씨’이거나 일본인의 돈에 팔린 여인으로 구체화된다. 기지촌의 아가씨인 심청도 여전히 희생양이다. 그녀는 강대국에 의한 신식민지라는 강요된 현실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심청의 희생이 외부로부터 강요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청의 첫번째 희생제의가 주변인물의 폭력적 만장일치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심청의 희생에는 내부적인 힘도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신식민지라는 걱정스러운 현실은 강대국의 압력 뿐 아니라 집권층의 주체성 상실에 의해 유도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작가는, 힘없이 파괴되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선석판지의 도래를 경계하는 한편 인간존엄을 무시하는 거대한 힘의 논리를 폭로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달아달아」의 경우 <설화를 직접 차용한 것이 아니라 판소리계 소설을 패로디화하여 재해석하였다는 측면에서> 다른 회고들과 변별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자면, 「달아달아」의 배후에는 원 텍스트인 소설 「심청전」이 있어서 그것과 대비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반복과 차이, 혹은 지속성과 변화를 밝혀 내고자 우선 「심청전」과 「달아달아」의 구조를 비교하여 희생제의의 구조가 반복

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차이의 측면으로는, 「달아달아」에서 희생 제의가 두 번 거듭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횡수를 더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서 패로디의 의미를 강화시키려는 작가의 의도와 관련이 있다. 한편 「심청전」의 초월적인 해결 장치나 비합리적인 사건의 전개 등이 현실적인 인과관계로 대체되면서 두 작품 사이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세계관의 변모에 따른 영향인 동시에 작가의 선택 내지 작가의식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심청을 철저히 파멸시킴으로써 그녀가 시대의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다.

<손님-매파-벧사람-뽕덕어미-심봉사>로 이어진 욕망의 사슬에 의해 심청을 둘러싼 세계 전체가 욕망의 화신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이 상황이 바로 희생위기이다. 이들은 '폭력적 만장일치'를 이루어 심청을 희생물로 지목한다. 심청이 갖고 있는 희생의 표지는,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사람들과 공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달아달아」는 폭력이 감추어지지 않음으로써 집단의 거대한 폭력에 희생당하는 개인의 왜소함을 그리고 있다. 개인이 무기력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폭력은 위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동시에 폭력의 부당성이 고발된다고 하겠다.

한편, 이순신의 출현은 「달아달아」에 역사성을 부여하는 장치가 되어, 개인적인 욕망의 화신에 불과했던 집단의 폭력이 각기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실체로 전이된다. 이때 심청은 보편적인 욕망의 희생양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 상황이 파생한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과거가 아닌 현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패로디의 방식을 채택했다고 할 때, 「달아달아」는 작품이 쓰여진 1970년대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당시는 분단상황을 초래하고 계속 국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 막강한 경제력을 무기로 한국의 경제를 잠식하

려는 일본이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되고 있었다. 이른바 신식민지화의 도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청은, 강대국에 의한 신식민지라는 강요된 현실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힘없이 파괴되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신식민지의 도래를 경계하는 한편 인간존엄을 무시하는 거대한 힘의 논리를 폭로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